

## ■ 봄철 환경정비사업

## ‘예쁜 남구만들기’ 주민들 소매견었다

○**용호2동 주민자치회**(위원장 김정실)는 지난 1일 공동체 형성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단체회원 30여명과 합동으로 늘빛교회 맞은편 도로변 공터에 철쭉 1000그루를 심었다.

○**용호2동 자연보호협의회**(회장 김복규)는 동 주민센터에서 낚, 집게 등 환경용품을 지원받아 지난 4월 26일 자연보호회원 20여명과 함께 벽산아파트 뒷산과 장자산 큰고개 습터 일원에 철쭉, 화양목 100그루 등을 심고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용당동 어린이집** 7세 하늘반 원생 23명은 지난 4월 18일 주민들과 용당서관 건물 뒤편 화단에 꽃잔디, 봉선화, 팬지, 해바라기등을 심었다.

○**문현1동**(동장 손재무)과 **문현초등학교**(교장 문영오) 함께 가꾸는 학교·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4일 학교 정문 울타리에 어린이들의 등교길을 지켜줄 꽃밭을 조성했다.



○**문현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명기)는 지난 15일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바르게 회원 등 40여명과 함께 철쭉동산 일원에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및 배수로 정비 등 도시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 오륙도 어린이사생대회 성료

지난 11일 용호1동 청년회(회장 이진우)가 주최한 '제17회 오륙도 어린이 사생대회 및 어린이 한파남 행사'가 어린이와 학부모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사생대회 대상은 용호초등학교 4학년 한민서양에게 돌아갔다. 졸업기 대회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사전제 8대, 스케치북 2,000권, 무선자동차, 등 3,000여점의 완구와 문구를 경품으로 나눠줬다.

## 장학금 전달

○**대연1동 대연제2장학회**(회장 한용욱)는 지난 7일 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저소득 자녀 5명에게 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용주새마을금고**(이사장 김장길)는 지난 4월 25일 대연3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연3동장학회(회장 배도성)에 관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문현지킴이장학회**(회장 이종현)에서는 지난 4월 30일 문현3동 주민센터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저소득층 자녀 10명(문현3동 7명, 문현4동 3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줄이는 2014 행복 나누기



○**대연1동 청년회**(회장 오장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8일 대연1동 공영주차장에서 어르신 350여명을 초청, 제2차 어르신 위안잔치를 개최했다. **대연제2장학회**(회장 한용욱)에서는 지난 4월 20일 관내 신동경로당, 천지경로당, 대남경로당 세 곳을 방문해 150인분의 떡, 수육, 과일, 김밥, 국 등을 전달했다.

○**대연3동 대동 장·청년·부녀회**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북부경로당에서 어르신 90여명을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열고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용호2동 벽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회장 하원근)는 지난 8일 경로당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수육, 과일, 떡 등을 대접하는 경로잔치를 가졌다. 그리고 **오륙도 SK 뷰 아파트 부녀회**(회장 김순애)와 노인정에서는 지난 8일 관내 어르신 150명을 모시고 과일과 떡 등 점심을 대접하는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밖에 관내 아파트 **부녀회 및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모시고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경로효친 잔치를 가졌다.

## “50년 교편… 야학하며 진짜 교사로 거듭나”

## 42년 전통 야학교 남부중고교 최중용 교감



최중용 교감이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현직에서 교편을 잡은 36년 6개월이 교생 실습기간이었다면 지금이 진짜 교육자가 된 느낌입니다.”

올해로 14년째 남부중고교(교장 안기형)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최중용(70) 교감. 정소부터 자질구레한 잡일까지 실질적인 살림을 도맡아 하느라 그에게 하루 24시간이 빠듯하다.

42년의 전통에도 아직 제대로 된 교훈 하나 없을 정도로 환경은 열악해도 그가 교감직을 맡으면서부터 학교가 학교다워졌다. 문현동에 자리 잡은 남부중고교는 정식학교가 아니다. 몇 남지 않은 야학이다. 한글을 가르치는 조동부와 검정고시를 대비하는 중·고등부 등 ‘늙은 학생’ 60여명이 배움에 대한 갈증을 푸는 곳이다. 평균 나이 65세에도 한학열은 청년 못지 않다. 지난달 치른 검정고시에서 중등부 5명이 전원 합격했고 고등부도 절반이 합격했다.

교사 출신인 최 교감이 이 학교와의 인연을 맺은 건 2001년 3월 우연히 봉사를

씨는 지난 8일 쌀(10kg) 2포를, 양산박 대표 최영순씨는 지난 9일 쌀(20kg) 5포를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했다.

○**자유총연맹 대연5동 분회**(회장 제성해)는 지난 4월 11일 혼자서 어렵게 생활하는 할머니 댁을 찾아 싱크대를 제작·설치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동명대학교**(총장 설동근)는 지난 4월 30일 학교 정문의 책담분수대에서 학과당 학생, 교수 등 4명씩 모두 184명이 참여해 어르신 말벗되기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 봉사단은 용호동 지역 홀로 노인 등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46세대와 1대1 결연방식을 통하여 12월까지 약 9개월간 전화안부, 생신상 챙기기, 방문 위로하는 등 ‘가족’이 돼 어르신들을 보살핌 예정이다.

○**동명대학교 사회적기업 Antlers**는 지난 16일 남구청을 방문해 지역 저소득 주민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해 달라며 화장지, USB 등 300만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했다.

○**대연5동 주민자치위원회 박태양**씨는 지난 4월 23일 현금 3만원을, 주민 정동주

하면서부터였다. 작년 문을 연 한글 문제반을 거쳐 간 사람은 50여 명. 까막눈이었던 노인들이 읽고 쓸 수 있게 된 게 무엇보다 고맙고 감사하다. “언젠가 성지곡수 원지로서 소풍을 갔을 때 70대 심복순 학생이 ‘답배를 파우지 맙시다’라는 현수막을 직접 읽으며 감격해 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관련기사 7면>

전현직 교사 30명이 열정 하나로 남부중고교를 지키고 있지만 근래 재정적인 어려움에 학교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턱없이 부족한 유지비를 조달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나며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내다 버린 책걸상과 질판을 가져다 쓰고 쪽쪽 찌는 제품도 선물기 몇 대로 버려야 한다.

“학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남부중고교에서의 자원봉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최 교감의 말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한정미 기자**

## 부산 남부중고교 학생모집(무료)

부산 남부 중·고등학교(야학)는 성인 및 정규학교부적응 청소년 대상으로 초등(한글 기초), 중등·고등(검정고시)반을 상시

모집한다. △초등한글반, 중등반 교재무료 제공 △초등·중등·고등 검정고시 합격 보장 △전·현직 최고급 강사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기관, ☎622-1205, 010-4543-4746

## 이곳에 온정을 -순정할머니의 고달픈 하루

## 가혹한 현실, 그래도 희망을 꿈꿉니다

골목길을 한참 올라가니 판자집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문을 연니 아린 땀에 황달로 노란 빛을 띤 얼굴의 순정 할머니(가명·62)가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순정 할머니는 결혼 후에도 남편의 심한 술주정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거의 매일 술에 잔뜩 취해 때로 부엌칼로 할머니를 찌르려고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정 할머니는 죽을보다 더한 고통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허우적거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3명의 소중한 자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소망과는 달리 아이들까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질병까지 얻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 뇌수술을 받고 정신지체 1급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애다 척추가 휘어나와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쪽잠을 자야 합니다. 23년 전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딸은 이유 없이 반복되는 어지럼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데다가 양쪽 무릎까지 다쳐 이제는 자신의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순정 할머니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일찍 중학교를 중퇴하고 신발공장에 가서 본드 냄새를 맡으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둘째 아들의 통통 부은 손을 보면서 열심히 살

아야 한다는 실낱 같은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최근 10년 넘게 일한 신발공장이 문을 닫아 실직을 하게 되면서 가정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고 눈멀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와 월세는 순정 할머니의 가족들에게 바위 같은 삶의 무게가 되어 버렸습니다. 순정 할머니는 계속되는 절망적인 현실로 가족을 지탱하는 희망의 불씨마저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 너무 두렵기만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에 서 있는 순정 할머니와 그 가족들,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도록 순정 할머니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주세요.

## ♥ 성금 감사합니다

2014년 4월에 게재된 은하씨 사연에 대하여 ○○○님 5만원, 문현동○○○님 3만원을 후원받아 은하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도움 주실 분  
연락바랍니다  
☎607-4865  
(주민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

부산은행 315-01-000297-0(예금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넉넉한 인상… 하지만 일처리는 ‘칼’

## 오륙도 친절지기 청소행정과 정찬운 주무관



‘대연6구역 재개발로 지역이 슬럼화되었는데 이곳을 청소해 주고 초등학교 앞에 개진 유리를 빨리 치워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스마트폰에 민원을 올렸는데 쓰레기를 치워주고 진척상황도 문자로 보내주는 등 깔끔한 업무 처리가 돋보이는 책임감 있는 공무원 같습니다.’

남구청에 접수된 친절 내용에 대해 청소행정과 정찬운(사진) 주무관은 “원래 제가 하는 일인 걸요”라며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쑥스러워 했다. “민원인을 가족으로 생각하며 일한다”는 그는 다 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 지난 1996년 남구로 부임해 동주민센터, 청소소

정과, 기회감사실, 교통행정과, 총무과를 거친 뒤 지난해 7월부터 지금의 부서로 발령 받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를 맡고 있다.

민원인과 다름이 가장 많은 부서 가운데 한곳이다. 정 주무관은 집안의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 전화가 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답변하면 바로 욕을 하는 민원인들이 더러 있어 그게 가장 고충이라고 털어놓는다.

남구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는나는 질문에 “요일별 배출쓰레기를 잘 지켜달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사람 좋은 인상에 업무에 관해서는 ‘칼’ 같은 엄격함이 묻어

## 2014년 5월은 지난 1년간(2013.01.01~2013.12.31)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 문의 전화상담센터(☎126), 수영세무서 ☎620-9361~9369(남구) -

## 알차고 유익한 남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접수기간 : 기존회원 -매월 17일 부터 20일 까지, 신규회원 -매월 23일 부터 (선착순 마감)						
프로그램	대상	교류일	참가비	수업시간	수업시간	
수영	성인	월~금	66,000원	6시/7시/8시/9시/10시/11시/13시/14시/18시/19시/20시/21시		
		월/수/금	44,000원	13시/14시/15시/16시/17시		
	청소년	월/목	33,000원	13시/14시		
		토/일	44,000원	9시/10시/14시/15시		
	장애우	화/목	30,000원	15시		
		월~금	44,000원	16시/17시		
	초등	월/수/금	30,000원	15시/16시/17시		
		화/목	25,000원	16시/17시		
	(6~7세)	토	25,000원	9시/10시/13시/14시/15시		
		월/수/금	30,000원	16시		
아쿠아로빅	성인	월/수/금	60,000원	10시/11시/12시/13시		
		화/목/토	60,000원	12시/15시(피워반)/18시		
	헬스	월~토	44,000원(청소년 : 38,000원)	06:00~22:00토·토:09:00~18:00		
		주말헬스 이상	토/일	22,000원(청소년 : 17,000원)	08:00~20:00 (일요일은 한달에 2회 오픈)	
	골프 (일반타자)	월~금	110,000원(청소년 : 88,000원)	06시~22시(매시각2수업)		
		토/일	77,000원(청소년 : 66,000원)	9시/10시		
	골프 (스프린터타자)	월~금	143,000원(청소년 : 121,000원)	06시~22시(매시각2수업)		
		토/일	100,000원(청소년 : 85,000원)	11시/12시/13시/14시		
	요가	성인	월/수/금	40,000원	8시/9시/10시/11시/19시/20시	
			화/목	30,000원	9시/11시/13시/14시	
자세교정·필라테스·파워스트레칭	성인	월/수/금	40,000원	19시/20시		
	성인	화/목	40,000원	12시/13시/14시		
스피닝	성인	월/수/금	120,000원(2개월) 수료 후 전액환불	9시/10시/11시/18시/19시/20시		
		화/목/토	120,000원(2개월) 수료 후 전액환불	9시/10시/11시		
댄스	다이아트댄스	성인	월~금	50,000원	9시/10시/11시/19시/20시	
	발리댄스	성인	화/목	12시		
	댄스스포츠	성인	월/수/금	40,000원	14시/15시	
		유아~초등	월~토	30,000원	13시/14시	
어린이발레교실	초등	월~토	28,000원	16시/17시		
		토	69,000원(3개월)	11시/12시		
배드민턴	성인	월~금		6시/9시/10시/40분		
	청소년 (영등 자유인)	44,000원(청소년 : 38,000원)	18시/19시/20분/20시/40분			
	초등	월/수/금	16시/17시			
	토	25,000원	13시			
생활체육	음악놀이	초등	월/수/금	40,000원	16시/17시	
		토	25,000원	14시		
탁구교실	성인	월/수/금	33,000원	15시/16시		
		토	30,000원	17시		
	농구교실	초등	월/수/금	30,000원	17시	
		초등	화/목	30,000원	17시	
문화	창의 기발놀이	5세~6세		12시		
	7세~8세			13시		
수학기초	8세이상	토	69,000원(3개월)	14시		
	수학기초					
기타	심계소생교육	초등이상	네이버책독일	무료	15시	
	초등이상					

※ 장기등록할인: 3개월(5%), 6개월(10%), 12개월(15%) (☎626-8200)

※ 패키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참조 (www.namsports.or.kr)

## 빌로체 독서실

최고의 시설로 최선의 면학분위기 조성

- 립식 소수정에 열람실(넓고 아늑한 공간)
- 인터넷 학습실 완비 (PC 4대 비치)
- 최첨단 컴퓨터 출입시스템의 완벽관리
- 완벽한 냉·난방시설, 립별 환기시설 완비
-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실외 휴게실(독서실 입구)
- 안전한 귀가길 차량운행(2회: 새벽 12시 30분, 1시)

**051-631-0733 010-2605-6184**  
남구 유엔로 38번길 41, 1층(우암동 17번지 영남빌로체 상가(우암동새마을금고 옆, 중앙하이츠 후문 옆))

## 백중기도 접수받습니다

동명불원 하반기 기도 안내

백중기도, 수능백일기도, 생전애수제, 동지기도

• 문의: 중무소 051-626-4337, 624-7667

## 東明大學校 平生教育院

### 추사체(서예)일반인초급과정

문의 010-6774-0540

강사 초원 김종수

## 부산작명연구소

♣ 대통령 상, 독일 IENA상을 받은 노 학자가 철학 공부를 많이 하여 작명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 작명 개명 무료, 아기 이름 전문, 아호 상호 전문, 이름 감정 무료, 개명 상담 무료, 셋째 작명 무료.

YTN 방송사 대상 받음

서울신문사 대상 받음

1. 부산사범대학, 경영대학원
2. 신지식인, 동아 철학지도사
3. 발행 특허권 88개 취득
4. 에디슨원구, 아폴로 대표
5. (합) 한영 물산 한국 대표
6. 한국 아이디어 뱅크 관장
7. 부산일보 1년 6개월 글솜
8. 부산을 달린다 1년 생방송

작명 전문가 구 기 백  
www.busanname.com

동래역 1번 출구앞 556-8833 · 010-3045-3883